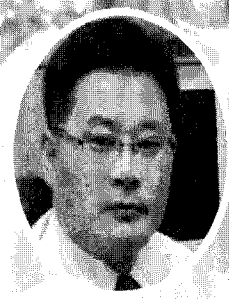
낙농 사료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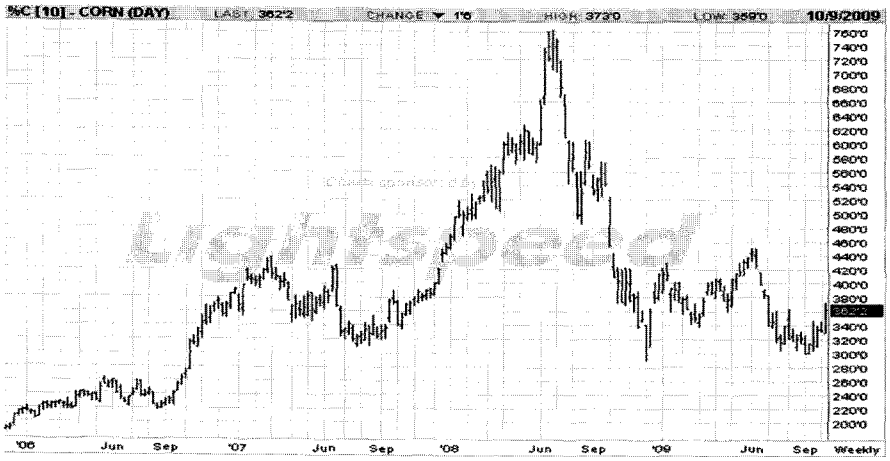


김 무 진 부장
CJ제일제당㈜ 축우PM

2009년 축산산업을 돌아보며…

2008년이 전년부터 이어온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해상운임비 인상 그리고 국제사료작물의 작황부진 등의 이유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여 사료원료를 거의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축산 산업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해라면 2009년은 '08년 말부터 곡물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환율까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 낙농사업의 외부환경은 다소 안정적이었다. 2009년 말 기준 국내 확보된 사료원료의 가격은 다소 높지만 2010년부터는 다시 하향안정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도 2007년 5월부터 시작되어 2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 7월 타결되었다. EU와도 FTA 체결에 따라 아직 위기의 어두운 터널이 빠져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그 어두운 터널이 시작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EU와의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축산부문



〈'06년 -'09년 9월 옥수수 가격 동향〉

자료출처: futuresource.com

에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현재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분유의 경우 전체 수입량 중 EU로부터 수입된 양은 적게는 62.4%에서 많게는 84.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 EU FTA가 타결돼 무관세나 현재보다 낮은 관세율로 EU로부터 유제품 수입이 허용될 경우 EU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절대 수입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특히 인접한 일본과 중국까지 FTA를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향후 더욱 더 낙농의 국제 경쟁력이 요구되어 진다.

국내 낙농산업은…

2009년 낙농통계연감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2008년도 진흥회 소속 낙농가 평균 연소득은 3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 연간 소득 5천300만원 대비 무려 33%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값 폭등이 소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영향은 '09년도의 낙농산업에 까지 큰 영향을 미쳤고 낙농산업의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등 낙농업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낙농사육두수의 감소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생산량은 전년비 2.2%수준 감소가 예상된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국내 유업체의 우유에 대한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원유의 국내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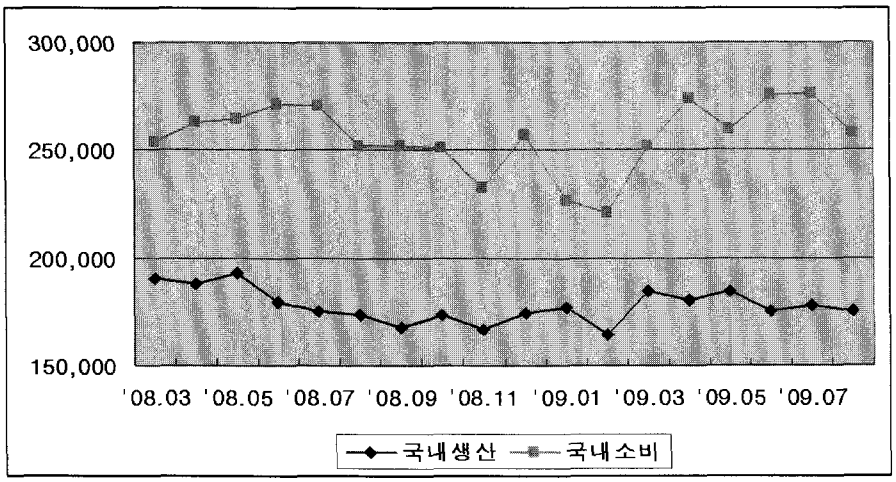
하지만 국내원유생산량의 감소가 단순히 사육두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실제 낙농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합사료 줄여 먹이기와 저급조사료의 사용량 증가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고급 조사료에 해당하는 티모시와 알팔파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수입조사료 추천실적에 따

〈연도별 사육두수 및 호수 변화〉

단위 : 천두,호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e)
총두수	519	497	479	464	453	446	437
전년대비	-4.6	-4.1	-3.7	-3.1	-2.4	-1.5	-2.0
사육호수	10,514	9,612	8,923	8,260	7,657	7,000	6,730
전년대비	-10.3	-8.3	-7.2	-7.4	-7.3	-8.6	-3.9
호당두수	49.4	51.7	53.7	56.2	59.2	63.7	64.9



르면 티모시의 경우 2007년에는 13만5382톤을 수입했으나 이듬해인 2008년에는 7만7733톤으로 수입량이 45%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티모시나 알팔파 보다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짚 종류인 톨테스큐는 2006년 11만3420톤을 수입하던 것에서 2007년에는 14만7159톤으로 23%가량 늘어났으며 2008년 수입량도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사료 생산량에서도 볏짚 생산량이 늘어났으며, 볏짚생산량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지만 수입조사료를 상당부분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급조사료 급여를 늘리는 대신 고급조사료 비율을 낮춰 급여하는 동안 젖소들의 기초체력이 저하되면서 두당 산유량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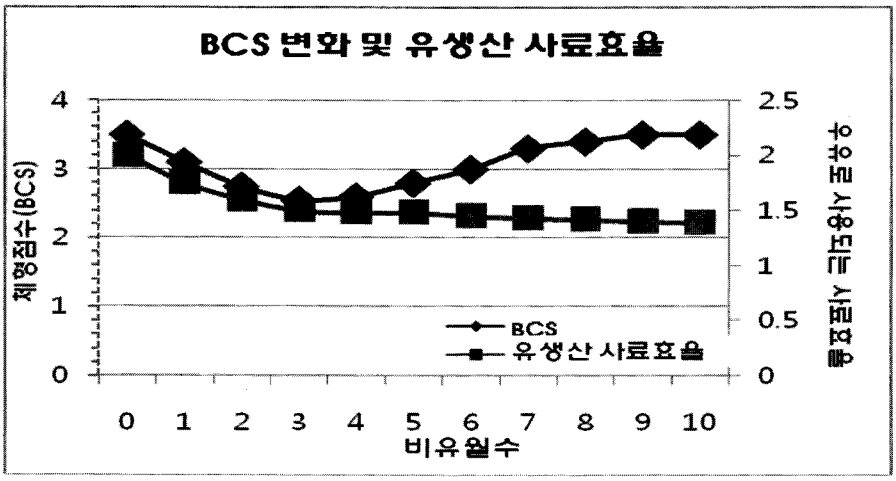
2010년 우리 국내 낙농목장에서 이러한 현상들에서 기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2010년 낙농 목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2010년 곡물가나 환율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서 사료비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의 우유홍보 및 유업체의 활발한 마케팅의 전개로 우유의 소비도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단체에서도 FTA와 같은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국단위쿼터제 및 유대산정체제 등 제도적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목자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은 고곡물가 시대에 소홀했던 젖소의 생산성을 되찾는 일이다.

최근 국내 착유우의 경우 전문컨설턴트에 의하면 체형자체가 많이 망가져 있다고 한다. 체형 손실은 그 당시에서는 큰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음 산차가 돌아왔을 때 번식 문제로는 호르몬의 불균형, 발정지연, 미약발정 및 수태율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대사질환으로는 많은 목장



의 공통적 질병인 케토시스, 유열, 4위전위 및 과산증 발생확률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영양소 불균형 및 비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인한 유생산 및 유질 저하등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여 많은 낙농목장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BCS(신체충실지수)의 저하는 건물섭취량이 아직 최고로 회복되기 전인 비유초기 기간에 높은 유생산을 위하여 체지방을 에너지로 동원하기 때문에, 보통 비유 초기 BCS 저하는 평균적으로 분만시점과 비교하여 0.75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Jim Linn, University of Minnesota).

특히 고능력우의 경우 사료를 줄여 먹이거나 저급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체형손실을 가져와 다음 산차에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비유중기 이후에 얼마나 빨리 BCS(신체충실지수)를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가가 향후 낙농목장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낙농 목장을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젖소의 생산성을 높이면 투자되는 두당 급여비용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8년 유대 인상 이후 다소 인상된 유대 여파로 다소 원유생산량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낙농 농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는 것 보다 생산 비용 절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 목장을 추스릴때다.

업질러진 물이라면 다시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극복했던 어려운 파고를 뒤로하고, 생산성에 기반을 둔 글로벌경쟁력을 키워야 한다.